

〈芙蓉相思曲〉 연구—구성적 특징과 갈등 구조 및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조 광 국*

1. 서론

〈부용상사곡〉은 목판본은 없고 1913년 신구서림에서 87면 분량의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전하고 있으며,¹⁾ 작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여주인공 부용의 작품집 『부용집』이 있음을 덧붙여 있어 실존 인물의 소설화 경향을 내비치고 있다.²⁾ 이 소설은 남녀의 애정을 다루는 작품이며, 특히 기녀와 양반의 애정을 다루고 있는 조선 후기 작품 중의 하나이다.

그 동안 〈부용상사곡〉은 가사의 소설화 경향이나 애정 소설 또는 염정 소설의 하위 범주에 넣어져 다루어지는 등 주로 장르론적인 입장이나 소설사적 입장에서 취급되어왔다.³⁾ 그러나 개별적인 작품론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

* 홍익대 강사

- 1) 〈부용의 상사곡〉, 신구서림, 1913. (《활자본고전소설전집》 3(아세아문화사, 1976)에 영인되어 있으며, 원제목은 〈芙蓉의 相思曲〉이다. 이하 책 면수는 영인본의 면수를 따른다.)
- 2) 〈부용상사곡〉, 앞의 책, 89면.
- 3) 김기동, 〈가사의 소설화 시론〉, 《동국대 논문집》 3·4합집, 1967.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83.
박일용, 〈왕경통전계 애정소설의 흐름과 사회적 성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이 아니다. 개별적인 작품 연구라 하여 작품의 개요나 소개하는 정도이든가, 또는 작품의 의미를 밝히지 못한 채 단순히 시공간의 구조적 특징을 밝혀 놓은 정도이며,⁴⁾ 아직까지 그 개별적 작품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 부진 현상의 이유는 이 작품의 출간 연도와 작품의 시대적 배경 및 내용이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 그 어떤 것으로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용상사곡>이 개별 작품의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던 것은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기녀의 주도적인 애정 욕구와 남녀의 자유 연애 욕구 및 그 의미가 과소 평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조선 시대 후기의 기녀들의 삶과 애정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애환을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 기녀들의 세태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조선 후기 사회의 신분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서민 특히 기녀의 양반과의 순수한 사랑의 감정과 이별의 애환을 서정 시가의 형태로 담아내되 서사 세계에서 그 정감을 구현하는 작품으로서 주목을 끄는 작품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작품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 <부용상사곡>의 구성상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대립과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을 해명하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서정 시가 양식의 삽입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부용상사곡>의 구성상 특징

<부용상사곡>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기생 부용은 평양 영문 이방 추업황의 딸로 재색이 뛰어난 평양 기녀이다. 부용은 일찍이 부모를 잃고 시비 매향과 노랑 이파와 함께 사는데 가산이 유족하여 詩書琴書로 세월을 보낸다. 당시 경성 안동국에 전 평양 감사, 전 이조

4) 강경화, <부용상사곡 연구>, 《건국어문학》 13·14합,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1989.

판서의 아들 김유성이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과 살고 있었는데, 유성은 모친의 승낙을 받고 구경차 평양으로 간다. 유성은 선친의 평양 감사 시절 이방 김달중의 집에 찾아가 머문다. 어느 날 연광정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유성은 아름다운 거문고 소리를 듣고 주막에 들러 거문고 타는 이가 기생 부용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는 주점 노파를 통해 시를 한 편 들려 부용에게 전해주고, 이에 시를 받은 부용은 그 재주에 탄복하여 유성을 청하고 서로知音임을 알고 연분을 맺고 백년해로할 것을 약속한다. 유성이 모친을 염려하여 경성으로 돌아가게 되자, 서로 이별한다. 부용은 그날 밤 꿈속에서 신선 세계의 미인들에게 사랑과 절개에 대한 이야기들 듣고, 꿈에서 깨자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을 담은 <상사별곡>을 짓는다. 한편 부용을 흠모하여왔던 평양 감영의 통인 최만홍이 자객을 사주하여 귀경하던 유성을 살해하려 한다. 마침 큰 범 한 마리가 출현하자 자객들은 도망하고 그 사이에 유성은 살아난다. 얼마 후 주색을 몹시 좋아하는 신임 평양 감사 이도중에게 최만홍은 부용을 천거한다. 대동강에서 뱃놀이에서 부용은 감사의 겁박을 피하여 강물에 투신 자살한다. 때마침 그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주점 노파의 남편 최기남에게 구출되어 그 집에 의탁한다. 한편 평양에 사람을 보낸 유성은 부용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한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팔도에 어사를 파견하는데, 평안도 어사 이몽매가 평양 감사 이도중의 죄상을 들어 상소하니 이도중이 파직당한다. 부용은 평양 집으로 돌아와 “장단구상사곡”을 지어 유성에게 보낸다. 이때 과거에 급제하여 교리 벼슬에 있던 유성은 성천 부사로 부임하여 부용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 부용의 권고로 유성은 이판서의 사위가 되고 행복하게 산다.

<부용상사곡>은 기녀 부용과 유성의 애정 결합을 다룬 소설인데 여느 애정 소설과 마찬가지로 남녀 주인공의 “애정 결연-이별과 수난-재결합”이라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을 두루 수용하여 작품 구성상의 특징을 보이는데, 그 양상을 간추려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된다.

- ① 부용과 유성의 애정 결연—<구운몽>·<옥루몽>의 영향
- ② 부용과 유성의 이별 이후 몽중 세계—남녀 애정 및 여성 수절의 고사 인용
- ③ 그리움의 노래 <상사별곡>—가사 <상사별곡>의 수용
- ④ 유성의 피살 위기 및 부용의 겁박 위기—살해관련담 및 기녀수절담의 영향

⑤ 평양 감사 파직 이후 부용이 보낸 “장단구 상사곡”-기생 부용의 『부용집』의 <총시> 수용

1) <부용상사곡>의 <구운몽> · <옥루몽> 수용 양상

<부용상사곡>은 부분적으로 김유성과 기녀 부용이 만나 서로 가연을 이루는 과정에서 열한 곡조를 번갈아 연주하면서知音임을 확인하는 데, 그 대목은 부분적으로 <구운몽> · <옥루몽>의 영향을 받고 있다.⁵⁾ 남녀 주인공에 의해 차례로 연주되는 곡조는 예상우의곡(<구>), 옥수후정화(<구>), 낙화유수곡(<옥>), 백설조(<옥>), 제후곡(<옥>), 출새곡(<구>), 수선조(<구>), 봉명곡(<옥>), 금동선인곡(<옥>), 광릉산(<구>), 봉구황(<구>) 등 11곡이다.⁶⁾

그 중에서 <구운몽>의 ‘예상우의곡’과 <옥루몽>의 ‘봉명곡’에 해설 부분이 <부용상사곡>에 수용된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상우의곡>

① 아름답다 이 곡조여 완전히 천보적 태평기상을 보리라 이 곡조를 비록 사람마다 타나 이래로 진선진미함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비록 그러나 이는 세속 소리니 다른 곡조를 듣고자 하나이다(<구운몽>)⁷⁾

② 아름답다 이 곡되어 완전히 당명황의 턴보태평의 괴상이로다 사람이 이 곡도룰 아는 자 | 잇스되 그 신묘한 슈단은 낭 갖흔 니를 내 처음 보는 배니 이 넓은바 어양비고동디러흐니 경파예상우의곡이 아닌가 어즈러움을 비롯한 음악이라 족히 낱알 배 아니니 다른 곡도룰 듯기를 원호노라(<부용상사곡>)⁸⁾

5) 이러한 내용은 <청년회심곡>에서도 확인되는데, <청년회심곡>에서는 11곡이 아니라 7곡으로 되어 있다. 김진성이 기생 농월을 만나 서로 악기를 연주하며 낙화유수곡, ‘백설조’, ‘출새곡’, ‘수선조’, ‘옥수후정화’, ‘광릉산’, ‘봉구황’ 등 일곱 곡을 타면서 그 곡조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부분이 있다. 이 중에서 ‘낙화유수곡’과 ‘백설조’ 두 곡 부분은 <옥루몽>의 내용을 수용하였고, 나머지 다섯 곡은 <구운몽>의 내용을 수용하였다.

6) 영향 관계는 괄호 안의 작품으로 확인된다.

7)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국문 필사본 <구운몽> 권지일.

8) <부용상사곡>, 앞의 책, 26면.

<봉명곡>

① 선님이 스양치 아니하고 죽적을 잡아 알연이 혼 곡조를 알외니 천지 미소하시며 동홍을 보샤 왈 이는 심상한 슈단이 아니로다. 봉황이 조양의 울리 말근 소리 운소의 스못치니 듯는 즈로 하여곰 취몽을 찌여 인간 빅조의 범음을 빼슬지니 이 엇지 일은바 봉명곡이 아니냐(<옥루몽>)⁹⁾

② 공자ㅣ 이 말을 듯고 개연이 거문고를 밧아 슬상에 연소 한 곡조를 타니 용님이 탄왈 봉황이 조양에 울매 그 뉘은 소리 운소에 스못치니 듯는 자로 하여곰 취몽을 찌여 인간 빅도의 범상히 지저괴는 소리 썩슬지니 이 닐은바 봉명곡이 아니니잇가(<부용상사곡>)¹⁰⁾

<옥루몽>에서의 악곡 연주 부분은 벽성선이 황제의 그릇된 음악관과 풍류관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황제는 노균과 동홍 일당의 유희과 아침에 미혹되어淫樂을 즐기게 되었는데, 벽성선이 황제 앞에 불러 나아가 전래의 악곡을 연주하며 황제로 하여금淫樂에서 벗어나게 하여 올바른 치국을 하도록 권유한다. 이러한 벽성선의 행위는 양창곡의 정치 이념 노선과도 맞닿아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창곡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구운몽> 부분에서의 악곡 연주 대목은 양소유가 권문세가 외동딸 정경패를 만나는 대목이다. 특히 마지막 음악인 '광루산'을 연주하여 양소유가 정경패를 희롱하는 의미에서 '봉구황'을 연주하는데, <청년회심곡>에서도 김진성이 '봉구황'을 연주하여 농월을 희롱하는 대목은 그 구성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듯 <부용상사곡>은 기녀와 상대 남성이 만나는 대목은 <구운몽>·<옥루몽>에서의 악곡 연주의 장면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또는 그 대목을 수용하여 약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구운몽>과 <옥루몽>에서는 남녀의 결연 그리고 황제의 음악관과 풍류관을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부용상사곡>에서는 남녀의 결연으로 바뀌어 있고 곧 바로 남녀간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연결된다.¹¹⁾ 즉 <부용상사

9) 규장각 소장본 <옥루몽> 권지팔.

10) <부용상사곡>, 앞의 책, 29-30면.

11) <청년회심곡>에서는 이러한 음악적 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 김진성은 농월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데, 그러나 농월은 노류 장화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일단은 정신적인 교감만 맺자고 제의한다. 이러한 <청년회심곡>에서 농월이 김진성의 유희를 거절하는 대목은 <옥루몽>에서 양창곡이 벽성선을 친압

곡>에서는 이 악곡 연주 부분이 기녀 부용과 유성이 만나는 기녀 관련 세태 반영의 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녀 부용은 자신을 찾아온 유성을 맞이 하여知音임을 확인하고 육체적 정분을 맺기에 이른다.

2) 환상적 몽중 세계와 기녀 수절의 극대화

유성과 기녀 부용은 서로 사랑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이들의 애정 결합은 六禮之義를 갖춘 격식을 갖춘 혼인 형식을 취하지 않고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신들의 애정에 따라 가연을 맺는 자유로운 모습을 취한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은 유성이 모친의 염려를 헤아려 경성으로 되돌아가면서 서로 이별하게 되는데, 부용은 官妓로 매어 있는 신분인지라 유성을 좇지 못하는 현실적인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부용은 떠나는 유성에게 애정 추구하고 수절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다. 또한 이러한 기녀 부용의 수절 욕구는 유성과 헤어진 후, 몽중 세계 ‘淸虛院’에서 재삼 강조된다. 그 청허원에서 부용은 ‘留香閣’과 ‘情恨堂’을 차례로 들르면서 인간 세상에서 이름을 날렸던 여성들을 만나보면서 부용 자신도 인간의 인연이 다한 뒤에 이곳에 합류하게 되리라는 말을 듣는다.

‘유향각’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였던 경국지색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곳으로 인도된 부용은 춘추 시절 미인 南威, 월나라 西施, 漢무제의 총희 이부인, 漢성제의 첩 趙飛燕, 한나라 왕소군, 제나라 동훈후 소보권의 첩 반비, 후주 숙보의 귀비 장려화, 수양제의 강선, 당명황의 楊太眞 등을 만난다. 이들 여인 중에 몇몇 소개된 사연을 보면, 남위는 진문공이 삼일 동안 군신의 조화를 받지 않을 만큼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나 그 후 진문공이 여색을 경계하여 멀리 함으로써 버려진 후 청허원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소개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西施는 월왕 구천이 오나라에 복수하기 위하여 오왕 부차에게 받쳐 오왕으로 하여금 관아궁과 고소대를 쌓아 밤낮으로 行樂하며

하러 하자 벽성선이 거절하는 대목을 차용하고 있다. 또한 <청년회심곡>은 <옥루몽>에서 기녀 강남홍이 양창곡에게 노래를 불러 자신의 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기생이 남주인공에게 집의 위치를 알려 주는 내용이 <구운몽>에서도 나오지만, <구운몽>에서는 기생 계섬월이 양소유에게 노래로 하지 않고 직접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사를 돌보지 않게 한 다음 월나라가 공격하여 오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소개되고 있다. 한나라 궁녀 왕소군은, 한원제가 흉노와 화친할 때에 흉노의 임금 선우가 혼인하기를 청하자, 이에 원제가 화공 모연수로 하여금 궁녀들의 얼굴을 그리게 한 다음 미운 궁녀를 뽑아보내는데 이때 왕소군이 자신의 미모를 믿고 모연수에게 도도하게 굴었다가 그만 밧게 그려지고 이에 선택되어 흉노로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실제 왕소군의 모습을 본 원제가 미인이 흉노로 가게 됨을 분히 여겨 모연수를 베었다는 이야기의 여주인공으로 소개되고, 나중에 이 일을 두고 송나라 구양수가 시로 읊었는데, 그 시도 제시되고 있다. 반비는 제나라 망한 후에 반비가 동혼후를 저버리지 않고 죽었는데, 소동파가 그 절개를 기린 인물이라고 소개된다. 楊太眞은 당명황과 사랑을 나누는 후에 서로 이별하게 되어 그 후 봉래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명황이 찾아내어 부부의 맹세를 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청허원”에 오게 되었다고 소개된다.

‘유향각’에서 다음 장소 ‘情恨堂’으로 넘어가는데, 이곳에서는 남녀의 애정의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나 절개를 지킨 여인들이 소개된다. 진나라 혜제 때 石崇이 양녹주를 비단으로 사들여 호화롭게 살았는데, 석승이 녹주를 달라는 孫秀의 요청을 거절하였다가 그 후 석승이 화를 당하고 이에 양녹주가 석승을 위하여 節死하였다는 이야기, 초패왕의 우회는 초패왕이 패하여 노래를 불러 우미인을 이별할 때 우미인이 화답하고 자결하였는데, 후인들이 우미인의 무덤에 돌아난 풀을 ‘虞美人草’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과 송 문장가 증공이 시를 지어 탄식하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시가 제시되고 있다. 그 다음 진나라 축영대과 양산백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전국 시절 송나라 康王이 사인 직위에 있던 한빙의 아름다운 처 河氏를 탈취하였는데, 이에 한빙이 자살하자 하씨가 시를 짓고 절사하였다는 이야기, 당나라 권신 무승사가 교지지의 첩 碧玉을 탐내어 자신의 희첩에게 가무를 가르친다고 핑계대어 벽옥을 데려다가 돌려보내지 않자, 교지지가 ‘녹주원’이라는 글을 짓고 절사하니 이에 무승사가 교지지를 죽였다는 이야기 등이 곁들이면서 그 여주인공들이 차례로 소개된다.

‘유향각’에서 소개된 여성들은 주로 경국지색의 미모에 초점이 놓여 있다면, 후자의 ‘정향당’에 소개된 여성들은 물론 경국지색이면서도 사랑하던 남

편을 위한 節死 행위에 초점이 놓여 있다. 이러한 설정은 기녀 부용이 중국 역대의 경국지색과 어울리는 인물이며 또한 부용이 애정을 약속한 유성에 대한 강한 수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몽중 세계 설정은 재색을 겸비한 기녀의 신분이었던 부용으로서 유성에 대한 정조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부용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작품적 의미를 지닌다. 몽중 세계 특히 '情恨堂'에서 절개를 지키다가 의연한 죽음에 이르는 인물들을 만나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연한 節死의 상징성이 부용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몽중 세계는 부용이 節死라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리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용의 절개의 불변성을 검증하는 작품적 의미를 지닌다. 몽중 세계 '청허원'은 '세상 인생의 모든 인연을 주관하는 곳'인데, 부용도 원래는 '청허원'에 머물렀던 여인으로 '인간 세계에 연분이 중하여 잠깐 적강하였으며 60년 후에 다시 청허원의 인물들과 합류하게 될 인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부용은 이미 '청허원'의 존재로서 청허원에 있는 여인들 특히 '정한당'에 머물고 있던 여성들처럼 이미 그 절개가 검증받은 여인에 속하게 된다. 몽중 세계 '청허원'에서 아름다운 여인들 그리고 절개 있는 여인들을 소개받은 후에 양녹주로부터 '그대의 정절은 세상에 드문지라 마땅히 김랑으로 더불어 인간 부귀를 누리고 후일에 이 곳에 와 유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부용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몽중 세계의 '청허원'은 현실 세계에서 기녀 부용이 받아야 하는 고통을 예고하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정조를 지키려다 오는 고통스러운 수난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주는 환상 공간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현실적인 수난이 몽중 세계의 환상 공간에 의하여 보상받는 만큼 몽중 세계의 수절 여성들의 이야기는 기녀 부용의 유성에 대한 수절을 강화시키는 작품적 장치로서 그 의미를 지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3) <부용상사곡>의 가사 <상사별곡> 수용 양상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부용은 유성에 대한 그립고 안타까운 심정을 담은 "相思別曲" 총 60행을 지어 부른다.¹²⁾ 그 노래는 전체적으로 이별의 서러움

(1행-10행), 사랑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과 하나님에 대한 발원(11행-115행), 갑자기 닦친 이별의 정황(16행-19행), 꿈에서 입을 만나보려는 간절한 심정(20행-22행), 한탄과 서러움과 시름(23행-42행), 이별의 비유(43행-56행), 재회에의 기대감(57행-60행)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용은 가사를 통하여 유성과의 사랑을 '전생차생 깊은 연분'(16행)이라고 믿으면서 유생이 모친에게 돌아감으로써 닦친 이별을 '조물과 귀신이 시기 함'(18행)이라고 한탄스럽게 이별의 운명을 서글퍼하고, '적적무인 빈 방안에 홀로 있어 시름이라'(27행)하고 '맺히고 맺힌 설움 늘다려 이를손가'(37행)라 하며 자신의 시름과 설움의 생활을 단적으로 표현하며, 또한 자신이 유성과 나누었던 사랑을 회고하면서 '교태 겨워 웃던 웃음 헤아리니 더욱 싫고 사랑 겨워 울던 울음 생각하니 목이 맨다'(40-41행)라고 하여 비탄의 감정을 토로 한다. 그리고 부용은 유성과의 이별을 직녀성, 월궁항아, 왕소군, 무산신녀, 반첩여, 동작기, 채련여 등에게 비유하면서 '고금왕래 이별 중에 날같은 이 또 있는가'라고 하여 자신의 이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두어라 일후에 다시 만나면 기연인가'(60행)라고 하여 유성과의 재회를 고대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노래를 마친다.

<부용상사곡>의 작중 세계에서 부용이 지은 것으로 설정된 <상사별곡>은, 現傳하는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을 감정을 노래한 가사 <상사별곡>을 수용한 것이다. <상사별곡>¹³⁾은 십이 가사의 하나로 <상사곡>이나 <고상사별곡> 등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또한 49행형, 46행형, 20행형, 15행형, 14행형, 13행형 등 장단에 따라 여러 이본들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¹⁴⁾ <부용상사곡>에서 여주인공 부용이 지은 것으로 된 <상사별곡>은 총 60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계에 보고된 가사 <상사별곡> 중 가장 긴 형태의 49행형보다¹⁵⁾ 11행이 더 긴 형태를 띤다. 49행형

12) <부용상사곡>, 앞의 책, 59-65면.

13) <상사별곡>에 대한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정재호, <상사별곡>고, 《국어국문학》 55-57합, 국어국문학회, 1972.

윤영옥, <상사계가사연구-상사별곡->, 《어문학》 46, 한국어문학회, 1985.

14) 행이라는 단위는 시조의 초장, 중장, 종장에서 보듯 4음보를 취하는 일행을 말한 것이다.

15) 49장형은 <신고금잡가>(1916년 간행), <중보신구잡가>(1915년 간행), <남훈태평

<상사별곡>과 <부용상사곡>에 나타난 <상사별곡>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사별곡>¹⁶⁾

- (1행) 인간니별 만스중에 독숙공방이 더욱솟다/(2행) 상사불견 이느진등을 제뉘라셔 알니
 (3행) 미친시름 이렇저렁이라 훗트러진 근심 (중략)
 (49행) 아마도 넷덩이 있거든 다시보게 삼기소서

<부용상사곡> 중의 <상사별곡>

- (1행) 인간리별 만스중에 싱리별이 더욱솟다 /(2행) 창힐갓치 착흔사름 글조를 지울적에/
 (3행) 리별이란 두글조를 어이호여 너엿스며/(4행) 진시황의 영웅으로 시서를 불살을게
 (5행) 원슈이 리별이즈 무슴일로 못살앗노/(6행) 박랑사중창히력스 쓰고남은 그철퇴를
 (7행) 력발산하던 항우 쥬어 힘껏 들어 리별 두즈/(8행) 씨컷던들 이 세상에 리별홀리 업스련만
 (9행) 상스불견이 내 진정 그 뉘라셔 능히 알니/(10행) 밋친 시름 이렇더렁 훗호러진 만단 근심(중략)
 (60행) 두어라 일후에 다시 만나면 괴연인가

두 노래를 비교하면 처음 1행에서는 가사 <상사별곡>의 '독숙공방'이 <부용상사곡>의 '생이별'로 바뀌어져 있으며, <상사별곡>의 1행과 2행이 <부용상사곡>에서는 1행과 9행으로 되어 있고 2행부터 8행까지의 노랫말이 새롭게 들어가 있다. 새롭게 들어간 이 노래말은 '이별'이라는 글자가 없었더라면 화자의 이별도 없었을 것임을 들어 이별의 서글픈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가>(간행 연도 미상) 등에 실려 전하는데, 모두 내용이 같다.(정재호, 앞의 논문, 491면 참조)

- 16) 여기서는 <남훈태평가>에 실려 있는 49행본 <상사별곡>을 대상 작품으로 선정한 다.(이 가사는 정재호, 앞의 논문 말미와 윤영옥의 앞의 논문에 실려 있다.) 한편 윤영옥은 상사별곡의 아홉 가지 이본들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이본 중에서 <남훈태평가> 소재 <상사별곡>이 <부용상사곡> 안의 <상사별곡>과 가장 근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윤영옥, 앞의 논문 참조)

한 마지막 행에서 보듯 <상사별곡>과는 다른 구절이 <부용상사곡>에 나타나 있다. 게다가 <부용상사곡>은 <상사별곡>을 수용함에 있어서 행수를 늘리거나 또는 글자를 바꾸고 또한 행의 순서를 바꾸고 있으며 약 30행 정도가 서로 일치하거나 비슷한 구절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미루어, <부용상사곡>이 기존의 여러 가지 <상사별곡> 가운데 이본의 하나이거나 또는 <상사별곡>을 의도적으로 변개하여 수용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되던 간에 <부용상사곡>의 노래에 나타나는 이별의 서글픔이나 안타까움, 입을 기다리는 심정 등은 <상사별곡>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마지막 행이 서로 다른 구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두 노래의 시적 화자가 사랑하는 입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면 종결하고 있는 것은 서로 공통적인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⁷⁾ 이로 보아 <부용상사곡>은 서민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 가사 <상사별곡>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

한편 <상사별곡>은 서민 중에서도 기녀들의 애환을 담아내고 있는 기녀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전날 기생이 살림을 들어가게 되면 하루 저녁 스승과 친지를 초대하여 석별의 잔치를 마련했던 것인데 그 자리에선 으레가 주인인 기생이 맞이한 손을 위해 상사별곡을 부르는 것이 또 관습이던 것이다. (중략) 마지막 가다듬어 부르는 상사별곡의 노래가 제대로 풀리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느라 몇 번이고 끊기고 그에 온 장을 다 부르지 못한다는 것이 이 노래였다.¹⁹⁾

위 인용문의 내용으로 보아, <상사별곡>은 기생들이 살림을 차리면서 스승을 떠날 때, 즉 기생 노릇을 그만둘 때에 관습적으로 불렀던 노래였다. 가사의 내용상 남녀의 이별의 한을 담고 있는 <상사별곡>이 기생노릇을 청산하면서 스승과의 석별의 정이 아쉬워서 부르는 정황과는 맞지 않지만, 적어도

17) 다른 이본에도 마지막 행이 “有情無情 할지라도 다시 보게 삼기소서 ㅁㅁㅁ이 이 뜻 알으셔 한 번 보게 하시쇼셔”라고 되어 있다.(<相思別曲>, 김동욱·임기중(공편), 《歌集》 2, 서울, 태학사, 1982, 335-339면.)

18) 정재호, 앞의 논문, 503-505면.

19) 이혜구(공저), 《국악대전집》, 서울 신세기 레코드 주식회사 출판부, 1968, 156면.

기녀 생활을 청산할 때에 그 기념으로 기녀들의 애환을 가장 잘 담고 있던 대표적인 노래를 불렀던 것이라 추정된다. <부용상사곡>에서는 이러한 기녀와 관련된 <상사별곡>을 그대로 수용하여 작품 세계에서도 부용이라는 기녀를 여주인공으로 내세워 부용이 남주인공 유성과 이별한 후에 '더욱 공자를 생각하여 이에 상사별곡을 지으니'라고 하여, 이 노래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이후에 기생 노릇을 그만 두고 退妓로 물러나 앉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홍순학(1842-1892)은 <연행가>에서 자신이 조선의 사신 일행으로 중국 청나라에 들어가면서 의주에 들러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의주 부윤의 전별연을 대접받는 대목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다음이 그 대목이다.

방물을 점검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압록강변 다다르니 송객정이 여기로다 의주 부윤 나와 앉고 다담상을 차려 놓고 삼 사신을 전별할 때 처참기도 그지 없다 일배 일배 부일배는 서로 앉아 권고하고 상사별곡 한 곡조를 차마 듣기 어려워라 장계를 봉한 후에 떨뜨리고 일어나서 거국지회 그음없어 억제하기 어려운 중 홍상의 꽃 눈물이 심회를 돕는다(<연행가>)

홍순학은 송객정의 전별연 자리에서 <상사별곡>을 들었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상사별곡>을 듣고 거국지회 즉 나라를 떠나는 심회를 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더욱이 홍상의 꽃 눈물이 심회를 돕는다고 기술하였다. 이로 보아 <상사별곡>을 부른 자는 紅裳 즉 妓女임을 알 수 있다. 기녀는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들을 맞이하여 그들과 정분을 맺고 장차 중국으로 더나는 홍순학 일행을 위하여 <상사별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적어도 기녀들이 정인과 이별할 때에 부르는 노래 중의 하나가 바로 <상사별곡>이라고 할 수 있다.

4) <부용상사곡>의 기녀 관련 살해관련담과 기녀 수절담의 수용 양상

부용과 이별하고 경성으로 향하는 유성은 최만홍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 목숨을 잃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다행이 호랑이의 출현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된다. 최만홍이 유성을 죽이려 하였던 까닭은 평양 감영의 通

인으로 있던 그가 오래 전부터 부용을 좋아하였지만, 부용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경성에서 내려온 일개 서생과 애정을 나누자 이에 대하여 분노하였기 때문이다. 최만홍이 자객을 사주하여 귀경하는 유성을 죽이려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살해 구성은 조선 시대 기녀 관련 상해 및 살해 사건과 살해관련담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녀 관련 살해 또는 상해 사건은 당대 사회에 있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였다. 성종 24년에는 봉상시 주부 노모가 명을 받들고 경상도에 갔는데 밀양에 이르러 7,8일 동안 머물며 회음한 후에 기녀와 동침하였다가 죽었는데, 그 일이 기부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²⁰⁾ 이밖에도 세종 28년에 대행왕비 국상 때 조정 관리가 기녀 만환래의 집에 들어갔다가 본부(本夫)에게 상복을 빼앗기고 쫓긴 경우도 있었고,²¹⁾ 성종 12년 전옥 주부 이계명은 기녀 석생화를 간통하였다가 그 남편 이영분에게 상투를 잘렸으며, 기녀 동산월을 간통하였다가 그 남편에게 매를 맞기도 하였다.²²⁾

이러한 사회 풍조를 배경으로 하는 기녀 관련 살해담들이 있다. <원귀설한>은 육체적 관계를 거절하였다가 살해당한 기녀가 원귀가 되어 나타나 자신을 죽인 자를 사또에게 알려 한을 풀었다는 이야기이다.²³⁾ 이 문제를 해결한 사또는 자신의 일이 조정에 알려져 승진되어 壽福을 누렸다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사또가 만난 원귀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기녀이고 그 기녀를 살해한 자는 통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기녀는 다른 신분 계층의 여성과는 달리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만큼 기녀를 범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통인이기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용상사곡>에서 통인 최만홍이 살해 대상으로 삼은 자가 기녀가 아니라 유성이었다는 점에서 <원귀설한>과는 다르지만, 통인이 기녀 관련 살해담의 살해자 또는 살해를 사주한 자였다는 점에서 <부용상사곡>이 이러한 기녀 관련 살해담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살해 대상이 기녀가 아니라 지방관이나 기녀의 情人으로 설

20) <성종실록> 권279, 24년 6월 정묘.

21) <세종실록> 권112, 28년 5년 경인.

22) <성종실록> 권128, 12년 4월 경신 임술.

23) <冤鬼雪恨>, 《교수잡사》(민속학연구소 편, 《고금소총》, 700-702면, 민속원, 1958).

정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조판서운규위안백시>와 <조판서운규재완영시>가 그 경우이다.²⁴⁾ 전자는 기녀와 동침하던 완백 조운규가 그 기녀의 정부였던 급창으로부터 독살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그 독살 계획을 엿들은 죄수가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살해 위기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이며, 후자는 조운규가 팔척 장부의 살해 위기를 당하였는데 기녀가 조운규를 깨워 피신하게 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교아동해인승위사>는 예지가 있는 해인사 대사가 합천 원의 아들을 가르쳐 嶺伯이 되게 하고 또한 훗날 그를 생명의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이야기이다.²⁵⁾ 그 이야기 중에 대사가 훗날 嶺伯의 목숨을 구해 준 내용을 보면, 영백이 평양으로 부임하여 수청 기생과 동침할 때에 수청 기생이 관노와 내통하여 영백을 살해하려 하였는데 마침 대사가 달려보낸 상좌가 영백 대신 살해됨으로써 영백이 위기를 모면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석유문사>는 한 문사가 기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사연을 들어 옮겨 적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기생의 사연인즉 기생의 情人이 살해당하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를 복수하였다는 것이다.²⁶⁾ 성안의 명기가 情人이었던 미소년이 살해되자, 그 기녀가 무변에게 도움을 청하여 뒷문을 열어놓고 서로 회롱하다가 코를 골며 잠든 제한 후에, 마침 그 무변을 살해하려 들어온 궁마직이를 잡아 원수를 갚는다.

이 이야기들은 기녀를 차지하려다가 기부에 의해 상해를 입기도 하고 또한 기녀를 흠모하는 자에 의하여 살해의 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살해당하기도 하

24) <趙判書雲逵爲完伯時>(규장각본 <계서야담>), <趙判書雲逵在完營時>(규장각본 <계서야담>).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조운규가 完伯 시절의 이야기로 차례대로 바로 이어져 있다. 이 두 이야기를 합한 것으로 <조순사퇴죽에간>이 있는데, 남주인공이 완백 趙某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다.(<趙巡使退粥死奸>, 가람본 <동야회집> 권5).

25) <教衙童海印僧爲廂>(규장각본 <청구야담> 권지십칠).

26) <昔有文士>, <동패략송>(《한국야담자료집성》 1, 계명문화사).

위 이야기의 이본으로는 <경검혈청루음한>과 <매장원시추살수> 등이 있다. 모두 기녀의 이야기를 전해두고 그것을 옮겨 적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녀의 정인 살해와 제삼자에 의한 복수 등의 내용도 비슷한데, 다만 <경검혈청루음한>에서는 기녀의 사연을 옮겨 적은 자가 조위한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驚劍血青樓飲恨>(가람본 <동야회집> 권6), <埋葬冤屍推殺驍>(서울대 가람고본 <청야담수>)).

고 한편으로 겁탈당하기를 저항하다가 기녀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살해자나 살해모의자가 모두 급창, 관노, 통인, 궁마직이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정은 <부용상사곡>에서도 기녀 부용을 사랑한 통인에 의해 유성이 살해 위기에 몰린 것과 비슷하다. 물론 세부적인 면에서 볼 때, <부용상사곡>에서 살해 위기에 몰렸던 주인공 유성이 호랑이의 출현으로 그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설정된 것은 이상의 야담들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부용상사곡>이 근본적으로 조선 시대 기녀 제도하에서 파생하는 개인적인 처정 관계와 살해 사건 및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야담들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한편 <부용상사곡>은 기녀 수절담과도 깊은 관련을 보인다. 김유성이 경성으로 떠난 뒤에 기녀 부용은 ‘지분을 전폐하고 문을 굳게 닫고’ 다만 김유성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며 김유성을 위하여 수절하고 또한 주색을 좋아하는 신입 평양 감사 이도중에게 수청들기를 거절하고 대동강물에 투신 자살한다.

그러나 기녀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남편을 얻을 수가 없었으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사대부들이 기녀로부터 수청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기녀가 지조를 지키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촉석루수의장중>은 진주 관아의 책실 도령으로 있던 박문수에 대한 기생의 변절 행위와 급수비의 수절 행위를 그려내고 있다.²⁸⁾ 박문수와 깊은 정을 나누고 서로 생사를 함께 하자고 굳게 약속하였던 기생이 훗날 거지차림으로 나타난 어사 박문수를 냉대하였다가 汲水婢로 강등당하게 되고, 그와는 정반대로 박문수가 재미 삼아 동침하였던 급수비가 박문수를 위해 수절하였다가 나중에 행수 기생으로 그 등급이 올라가게 된다.²⁹⁾ 또한 韓절과 수절이 반복되는 이야기

27) 이러한 살해 관련 양상은 <이진사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진사전>은 살해 관련 양상이 작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28) <麤石樓繡衣藏種>(규장각본 <청구야담> 권지십삼).

29) 이 이본으로는 <영성군박문수>, <촉석루양기점척> 등이 있는데, <촉석루양기점척>은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다른 내용, 임금이 汲水婢를 불러들여 박문수의 처로 삼게 하였다는 내용이 가미되어 있을 뿐, 이본들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靈城君朴文秀>(고려대본 <계서잡록> 권1), <靈城君朴文秀>(연세대 4책본 <기문총화>), <麤石樓兩妓點陟>(가람본 <동야위집> 권6)).

로 <강계기이수수절>³⁰⁾ <관홍장자장안명기야>³¹⁾ <축명석한>³²⁾ 등이 있다. <강계기이수수절>은 기녀 무운의 궤절과 특이한 수절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여러 이본으로 폭넓게 전해지고 있는데,³³⁾ 성진사에게 수절하기로 약속하였던 강계 기생 무운이 이경무를 만나 정분을 나누고 수절을 약속하자 이에 이경무가 성진사의 일을 들어 그녀의 수절을 비웃으니, 무운이 손가락을 베어 수절을 맹세하고 이후로 이경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수절하였다는 이야기다. <관홍장자장안명기야>는, 관홍장이 수절하던 한주가 귀양가자 해배되면 되돌아간다는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천군과 20여 년 동안 살면서 여러 자식을 낳았지만 마침내 한주가 해배되자 아무런 후회없이 이천군을 떠나 한주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홍장은 한주가 해배되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수절하여 왔으나, 노모마저 굶길 절박한 상황에서 이천군의 청혼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축명석한>은 남편의 사후에 嫡室을 대신하여 養子를 들여 집안의 후사 문제를 해결한 기첩이 관가에서 표창받기를 거절하고 改嫁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조선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기녀의 수절 행위가 드물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에서도 수절을 행한 기녀도 있었으며, 이러한 기녀의 수절 행위를 다룬 일화나 야담들도 있다. <풍릉조상국문명>은 기녀가 자신에게 애정의 선물로 부채를 준 풍릉 조문명을 위하여 수절하였다가 나중에 그의 첩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조문명이 기녀에게 애정의 표시를 보이며 부채를 준 것이 장난삼아 한 것이라고 하여 사대부 중심의 향락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각 이면에 기녀가 주도적으로 수절하여 조문명의 기첩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정황을 담아내고 있다. <탁종신여협연생>³⁴⁾은 7살 童妓가 자신의 재주를 알아준 여사 이광덕을 위하여 수절한 것

30) <江界妓李帥守節>(국립중앙도서관본 <청구야담> 권6).

31) <冠紅粧者長安名妓也>(만종재본 <어우야담>).

이 이본으로 <관홍장자>가 있는데, 참판 홍인경의 축실이 되었다는 것만 빼고는 그 내용이 동일하다. (<冠紅粧者>(연세대 4책본 <기문총화>)).

32) <祝螟釋恨>(규장각본 <차산필담>).

33) <巫雲者江界妓也>(규장각본 <계서야담>), <巫雲者江界妓也>(연세대 4책본 <기문총화>), <子灸…>(서울대 가람문고본 <청야담수>), <納淸亭二客哂笑>(가람본 <동야취집> 권6).

이 <풍릉조상국문명>과 그 줄거리와 구조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남주 인공이 유배를 당하였고 또한 남주인공이 병사함으로써 가련이 남주인공의 첩이 될 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가련이 節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한 기녀가 특정의 사대부를 향하여 취한 守節과 節死 행위를 사대부 중심의 시각에서 하나의 미담으로 담아내고 있다. <유사문명수>은 斯文 유명수가 세상을 뜨자 그와 관계를 맺었던 여인들 기녀와 처녀가 따라 죽었다는 이야기이다.³⁵⁾ 기녀는 한 번도 유명수와 깊은 정분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그를 위하여 守節하고, 또한 유명수의 도움으로 伸冤하게 된 처녀도 단 한번의 정분을 간직한 채로 守節을 관철한다. 특히 기녀가 한번도 정분을 나누지 않았던 풍류남 유명수를 따라서 節死하고 또한 그 기녀는 이종 사촌인 금산기가 유건보의 첩이 되게 함으로써 자신이 향유하지 못한 유명보와의 부부 인연을 금산기가 대신 이루도록 한다. 이 이야기는 한 기녀와 처녀의 節死와 守節 행위를 사대부 중심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기녀의 애정 지향과 수절 의지가 그려지고 있다. <여정해년>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부분은 윤국형(1543-1611)이 丁亥年에 使命을 받고 관복에 나갔다가 80이 넘은 당 사자에게 직접 들은 단천 관비의 조식 남명에 대한 수절 이야기이고, 뒷부분은 함흥 기생의 황위에 대한 수절 이야기이다.³⁶⁾ 단천 관비가 사랑하였던 남명이나 함흥 기생이 사랑하였던 황위는 모두 그 고을에 부임한 지방관의 자제였으며, 단천 관비는 17세의 동갑내기인 남명과 정분을 나누었고, 한편 함흥의 童妓는 어린 황위와 정분을 맺고 딸 자식을 낳기에 이른다. 단천 官婢나 함흥 妓女 모두가 그들이 관계를 맺었던 남명이나 황위가 떠난 뒤에도 그들을 향한 애정을 간직하기 위해 평생 동안 수절한다. 이 이야기는 이미 다른 수절담과 같이 사대부 중심의 서술 시각이 확인되지만, 한편으로 앞서 다른 기녀 수절담에 비하여 사대부의 행위보다는 기녀나 관비의 수절 행위를 구체

34) <托終身女俠捐生>(규장각본 <청구야담> 권지구).

이 이본으로 <함관대창아유기>가 있는데, 변장한 여사가 걸인차림으로 몸을 뒤지며 이를 잡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를 뿐이고, 그밖의 내용은 같다. (<威關對唱娥留期>(가람본 <동야회집> 권6)).

35) <俞斯文命修>, <동패략송>(<한국야담자료집성> 1, 계명문화사).

36) 윤국형, <余丁亥年>, <문소만록>(민족문화추진위원회, <국역대동야승> 14, 63-64면).

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녀 雜절이나 수절을 다루는 이야기로 미루어, 일반적으로 기녀가 한 지아비를 섬기고자 하는 평범한 소망은 조선 시대 상황에 비추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소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통념상 기녀는 양반들의 향락적 대상으로서 수절이 요구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정조가 요구되는 만큼의 인간적인 권리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기녀는 한 지아비를 섬기려는 소망을 완결시키기 위하여 기발한 속임수를 발휘하거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녀들의 수절 행위는 당대 조선 사회에서 비중 있는 주제가 될 만하였으며 그에 따라 야담으로 정착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기녀들의 수절 행위는 <부용상사곡>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야기들의 경우에는 모두가 이러한 기녀들의 수절 행위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서술 시각이 사대부들 중심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에 반해, <부용상사곡>의 경우에는 기녀 부용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애정 지향과 그것의 성취에 초점을 맞추어 그녀의 수절 의지와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5) <부용상사곡>의 『부용집』의 <층사> 수용 양상

강물에 투신 자살한 부용은 최기남에 의하여 구조되고 능라도에서 은거하며 지내다가, 그 후 평양 감사가 암행어사에게 걸려 파직면서, 평양으로 되돌아와 “장단구 상사곡” 일곡을 지어 유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리별하니/싱각하는도다/길이 머니/ 소식을 더더도다/싱각은 더기 잇고/몸은 여긔 잇도다/김수건에 눈물만 잇고/비단 부치는 괴약이 업도다/향각의 쇠복이 우는 밤과/련광명의 달이 돛을 때에/외로운 버기를 의지하야 쇠잔한 쉼을 놀 내이고/도라가는 구름을 바라며 멀니 리별함을 슬허하논도다/날마다 아릿다운 괴약을 기다려 자조 손갈탁을 굽히고/새벽에 정 잇는 편지를 펴고 부질업시 턱만 피이논도다/얼굴이 파리하니 거울을 잡고 눈물을 누리며/노리소리 목이 밋치니 남을 더하야 슬흠을 먹음난도다/은장도를 당기어 약한 창즈를 끈흠이 어렵지 아니하되/구살신을 이쌀고 먼 눈을 보니며 다시 의심이 만토다/어제도 아니오고 오날도 아니오니 랑군은 어이 신이 업스며/아침에 이 홀로 속음을

봄이로다/대동강이 평평한 룩디를 일운 후에 맘을 치쳐 그 오시라나/장립이
 큰 바다히 변홀 처음에 비를 타고 건너고져 호는가/리별홀 쟁는 만코 볼 쟁는
 적으니 세정을 가히 측량홀 사람이 업고/도흔 인연은 쓴혀지고 약한 인연이
 도라오니 하늘 뜻을 닐 능히 알 니 잇스라/흔 조각 향기로온 구름은 초나라 디
 밤의 천녀의 꿈이 아모더 잇건마는/두어 소리 묵은 통쇼는 진나라 다락 둘의
 통옥의 정을 닐게 붓치라/닛고져 호되 닐기는 어려워 다만 모란봉을 의지하니
 가히 앓갑다 흥안이 늙고/싱각지 말고져 호되 절로 싱각하야 강인이 부벽루에
 오르니 미양 푸른 살작이 쇠함을 슬허호도다/오로히 과부 갖흔 도장에 처함에
 구름 갖흔 터럭이 서리 되고져 호나 삼싱으 아릿다운 언악이 어이 변홀이 잇
 스며/홀로 빈 방에 자미 구살 갖흔 눈물이 비 갓호니 뵈년의 곳은 마음은 스스
 로 움기지 아니호는도다/붉꿈을 파호며 죽창을 열고 숫과 버들을 마즈니 쇼년
 이 모다 무정한 손이오/향기로온 옷을 당기며 옥벽기를 밀치고 노력와 춤을
 보내니 노는 즈제 막비미운 으히로다/천리에 사를을 기다리기 어렵고 사를을
 기다리기 어려오니 심하다 군즈의 박정함이 삼시로 문에 나 바라보며 문에 나
 바라보니 슬흐다 천첩의 그웁흔 회피 과연 그 엇다홀고/다만 관인호신 디장부
 는 뜻을 결단하야 강을 건너와 옛정을 측하에 깃거히 서로 디함을 원호고/유
 약한 으녀천로 호여곰 윈통함을 먹음고 황천에 도라가 외로운 혼이 달가온 디
 울며 길이 짜로게 말으쇼서

別/思//路遠/信遲//念在彼/身留茲//羅血有淚/執扇無期//香閣鍾鳴夜/練
 亭月上時//依孤枕驚殘夢/望歸雲悵遠離//日待佳期數屈指/晨開情孔空支頤
 //容貌憔悴把鏡下淚/歌聲嗚咽對人含悲//掣銀刀斷弱腸非難事/鑿珠履送遠
 眸更多疑//不來今不來郎何無信/朝而望夕而望妾獨見欺//涓江成平陸後鞭
 馬其來否/長林變大海初乘船欲渡之//別時多見時少世情無人可測/好緣斷惡
 緣回天意有誰能知//一片香雲楚臺夜仙女之夢在某/數聲亮蕭秦樓月弄玉之
 情屬誰//慾忘難忘徒依牧丹峯可惜紅顏老/不思自思強登浮碧樓每傷綠鬢衰/
 /孤處孀閨雲髮欲霜三生佳約寧有變/獨宿空房珠淚如雨百年貞心自不移//罷
 春夢開竹窓迎花柳少年總是無情客/攬香衣推玉枕送歌舞遊子莫非可惜兒//
 千里待人難待人難甚矣君子薄情固如是/三時出門望出門望哀哉賤妾幽懷果
 何其//惟願寬忍大丈夫決意渡江舊情燭下欣相對/勿使柔弱兒女子含怨歸泉孤
 魂月中泣長隨³⁷⁾

“장단구 상사곡”은 제목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부용이 사랑하던 유성과 헤어
 진 후 이별의 서러운 마음과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노래이다. 이 노

37) <부용상사곡>, 앞의 책, 77-81면.

래는 조선 후기에 실존하였던 기생 부용이 지은 <層詩>를 수용한 것이다. <층시>와 “장단구 상사곡”을 비교하면, 4행에서 ‘市櫺’(층시)이 ‘羅市’(장단구)으로, ‘扇環’이 ‘紈扇’으로 표기되어 있고, 8행에서 ‘形容’이 ‘容貌’로 표기되어 있으며, 10행을 보면 층시에서는 ‘朝遠望暮遠望郎何無心 昨不來今不來妾獨見欺’로 되어 있으며, 11행을 보면 ‘陸地’가 ‘平陸’으로, ‘騎’가 ‘其’로, ‘河’가 ‘海’로 되어 있고, 12행에서는 ‘見時少別時多’가 ‘別時多見時少’로 되어 있으며, 13행에서는 ‘神女’가 ‘仙女’로, ‘良簫’가 ‘亮蕭’로 되어 있다.(이하 생략). 이로 보건대, “장단구상사곡”의 내용은 몇몇 글자나 순서가 약간 다를 뿐이지 <층시>를 그대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층시>를 지은 부용은 호가 雲楚이며 1800년 경 평북 성천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집안은 유학자 집안으로 그 고을에서는 뿌리가 있는 집안이었지만, 그녀가 기녀가 된 까닭은 자세히 알 수 없으며 부용의 어머니가 기녀거나 천민 계층이 아니었나 추정될 뿐이다. 그 후 한양에도 올라갔다가 1825년 그의 나이 25살 무렵에 고향으로 내려왔으며, 5년 후 1830년 평북 귀성에 갔다가 그 해 겨울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왜 귀성에 갔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미 부용이 淵川 金履陽(1755-1845)을 만난 후라는 것만을 알 수 있다. 김이양은 안동 김문의 출신으로 한성 판윤을 거쳐 예조판서, 이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한 원로 정치가로 그의 손자 현근은 순조의 부마였으니 권세와 명예를 한 몸에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다. 김이양은 정경 부인 완산 이씨를 잃고 홀로 지내다가 나이 77세에 30여 세로 추정되는 부용을 소실로 삼았던 것이다. 부용이 지은 시는 『운초집』과 『부용집』에 실려 전해 온다.³⁸⁾ 한편 부용은 김금원·경춘 자매, 박죽서, 경산 등과 감정이 상합하여 서로 밀착된 詩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³⁹⁾

38) 김미란, <운초의 생애와 시>(허경진 엮음, 《운초 김부용 시선》, 평민사, 1993, 107-119면 참조)

부용의 시가 전해오는 시집은 다음과 같다. 필사본 《운초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송준호 교수 소장본), 민병도 선생 소개본 《운초집》(《조선역대여류문집》(울유문화사, 1950), 이 시집은 시인 김억이 소장한 필사본을 저본으로 하였다고 함), 필사본 《부용집》(국립도서관 소장본) 등이 있다.

39) 김지용, <삼호정 시단의 특성과 작품-최초의 여류시단 형성과 시자활동->, 《아세아 여성연구》 16,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1977.12.

<부용상사곡>은 그 제목으로 보나 여주인공의 이름을 부용으로 한 것이나 부용의 <충시>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또한 김이양이 역사상 성천 부사를 제수 받은 것과 작중 인물인 유성이 과거에 급제하여 성천 부사를 제수 받은 것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실존 기녀 부용의 행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의 말미에 덧붙인 “이에 그 사적을 대략 말씀하거니와 용낭의 문장은 따로 부용집이 있기로 이 책에 기록지 아니하노라”⁴⁰⁾ 라는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실존 인물과 작중 인물 사이에는 상이한 내용이 많이 드러난다. <부용상사곡>에서는 부용이 평양 영문 이방 추엽황의 딸로 설정되어 있음에 반해, 실존 인물 부용은 성이 숲이고 호가 雲楚이며 평북 성천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집안은 뿌리가 있는 유학자 집안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작품 세계에서 부용과 남주인공 유성이 만났을 때 모두 유성의 나이가 18세이고 부용도 청춘으로 설정되어 있음에 반해 실존 인물 부용이 김이양의 소실이 된 때 나이가 김이양의 나이 77세 때이며 50세 쯤 차이가 난다. 또한 작중 인물 부용은 정조를 지키고 있던 기녀이며 유성을 만나 지조를 받치고 수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실존 인물 부용은 30세 쯤에서 김이양의 첩이 된 것으로 보아 김이양을 만날 때까지 정조를 지키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부용상사곡>의 여주인공 부용은 실존 인물 부용과 여러 가지 면에서 상합하지 않다. 따라서 <부용상사곡>의 작중 인물인 부용은 실존 인물 부용에서 작품의 창작 동기를 얻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둘 사이의 행적이 매우 상이함을 볼 때 <부용상사곡>은 허구적으로 지어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3. 自由戀愛와 남녀 평등의 애정 결합

지금까지 <부용상사곡>의 작품 구성적 특징을 살펴봄에 있어서 그 구성적 특징이 다른 작품들, 이를 테면 <구운몽>·<옥루몽>과 같은 소설, 기녀 관련 설화, 가사 <상사별곡>과 한시 <충시> 등을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새

40) <부용상사곡>, 앞의 책, 89면.

롭게 형상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부용상사곡>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인물 부용과 유성의 애정 결합 양상을 만남으로써 <부용상사곡> 자체의 구조와 그 의미를 논의해야 할 차례다.

<부용상사곡>은 조선 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기녀와 양반의 애정적 결합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그 애정적 결합에 있어서, 조선 후기의 풍류적인 차원에서 벌어졌던 양반들의 향락적인 애정 행각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기녀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녀의 인간성이 인정되고 기녀의 주도적이고 저항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남주인공 유성의 애정 추구의 행위가 서로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1) 기녀 부용의 애정 욕구와 신분 상승의 욕구

부용은 평양 영문 이방 추업황의 딸로 문장과 자색이 뛰어나 평안도 42 주에 그 이름이 자자한 기생이다. 그러나 부용은 그러한 명기로서의 명성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불만을 지니고 있던 인물로 제시된다. 먼저 그녀는 여성으로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그녀는 항상 “타생에는 부인의 몸이 되지 말지어다 백년의 고락이 남에게 달렸느니라(他生莫作婦人身 百年苦樂由他人)”라는 백낙천의 글귀를 읊조린다. 부용은 이생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백년 고락이 다른 사람 즉 남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을 통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만과 탄식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열악한 여성의 처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여성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존여비의 사회적 굴레에 묶여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의 처지를 철저히 인식한 것에서 기인하는 한탄이자 탄식이다. 더욱이 이러한 탄식에는 기녀라는 신분 질서에 얽매어 자신의 일생이 관아에 묶여 있어야만 하였던 서글픈 신세에 대한 한탄이 가중되어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은 感傷의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부용은 비록 여성으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부용은 여성이면서도 천민 계층이었던 기녀 신분으로 이중적인 고통을 받아야만

하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강한 욕망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내 이미 창기의 몸이 되었으나 어이 노류장화의 친한 행색을 지어 의문헌소의 더러운 태도를 본받으리요 마땅히 관혜혜의 장상서를 만남과 의창의 진학사를 따름과 같지 못하여 평생에知己를 얻지 못하면 차라리 공규 중에 몸이 늙어 탁문군의 백두음을 읊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명산대천에 들어가 염주를 손으로 고르며 불경을 입으로 외워 법천 해월에 상승의 오묘한 도리를 깨달아 타생 극락을 공부하리라 하매 이럼으로 방백 수령의 부귀 번화한 회첩을 초개 같이 여기며41)

부용은 창기의 신분이지만 양반들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부용의 결심은 조선 후기의 신분적 사회 질서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결심이다. 물론 기녀들 중에는 지조를 지키면서 많은 남성들의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는 기녀도 있었으며 실제로 기녀가 결심만 하면 양반들의 육체적 관계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녀는 자신의 인간성과 정조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천민 계층에 불과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처럼 ‘방백 수령의 부귀 번화’를 추구하여 그들의 회첩이 되는 것이 기녀들의 현실적이며 일반적인 욕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용은 그러한 노류 장화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을 택하여 그를 위하여 일생을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한다.

부용의 이러한 결심과 의지는, 당대 조선 사회의 기녀 관련 세태를 고려할 때, 한 기녀의 사회 질서에 대한 개인적 저항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부용은 개인적인 애정 욕구를 실현함에 있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던 조선 사회와 대립·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부용은 豪華 富客들의 금전적 유희과 蕩子들의 감언이설에 일절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애정 추구의 의지를 관철해나간다. 부용은 기녀로서 평안 감사와 서운의 생일 연석이나 사신 행차의 잔치에 참여하는 妓役을 감당해야만 하였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결코 현혹되지 않았던

41) <부용상사곡>, 앞의 책, 5-6면.

것이다.

이러한 부용의 애정 추구의 의지는 수절 의지의 양상을 띤다.

첩의 깊은 소회는 공자가 이미 밝히 아시는 바이오니 다시 말씀할 바가 아니오니 평수종적이 반천리에 구름같이 나누이니 유유한 앞 기약이 정한 날이 없사오며 인사의 번복함과 취산의 무정함을 어찌 측량하오며 하물며 첩의 몸이 官府에 매였사오매 지킨 뜻을 꺾박할 자가 많을지나 모란봉이 무너지고 대동강이 마를지라도 첩의 마음은 변개치 아니하오리니⁴²⁾

부용은 자신이 官妓 신분이기에 현실적으로 자신을 꺾박하는 자가 많아 유성을 위한 지조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용은 모란봉이 무너지고 대동강이 마를지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자신의 수절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다. 부용의 강한 수절 의지는 부용이 유성이 깊어 사랑한 데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녀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평소의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 데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부용은 김유성과 가연을 맺기에 앞서서 ‘첩의 일신을 의탁하여 천한 이름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마음을 밝혔으며 또한 김유성과 이별하면서,

바라건대 공자는 천금의 귀체를 보증하사 만수천산에 행가를 삼가시고 수이 돌아가사 횡당 태부인께 반기시며 화조월색에 첩의 단장소혼(斷腸消魂)함을 생각하사 어안(魚鰕)을 조절(阻絶)치 마시고 고문답례의 숙녀가인을 맞으신 후 첩으로 하여금 소성지열에 참여하와 차신을 존문에 의탁하게 하소서⁴³⁾

라고 하였던 것이다. 한 지아비를 섬기며 그를 위해 일생을 수절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사대부 여성들에게는 일상적인 소박한 인생에 불과하였지만, 기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비밀상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욕망은 기생들로서는 누구나 한번쯤 지녀보았던 욕망이지만 조선 시대의 신분 질서와 기녀 제도 아래서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여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꿈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신분 변화의 물결에 싸여 그러한 부용의 욕망은 기녀

42) <부용상사곡>, 앞의 책, 41면.

43) <부용상사곡>, 앞의 책, 41면.

들 사이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부용은 자신의 기녀 신분엔 더 이상 얽매이기를 거부하고 신분 상승의 의지를 드러내며 애정 추구하고 수절 의지의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용의 욕망은 인간의 존엄성이 신분적 사회 질서에 의하여 보장받지 못하였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그 신분적 모순과 질곡의 상태를 드러내게 되며 나아가 압박받던 서민들의 비판 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부용이 정조를 지키면서 한 남성을 택하여 자신의 일신을 허락하고자 하는 욕망은 정신적 의지에서 비롯하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애정 추구의 욕망을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경제적·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데서 비롯한다.

부용이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다만 사비 매향과 노냥 이파로 더불어 있으나
가산이 유족함에 詩書琴書로 세월을 보내니 진짓 청루 중의 천고숙녀요 일대
절염이러라⁴⁴⁾

부용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였던 까닭에 양반들이나 부자들의 수청을 허락하며 경제적인 생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시비와 노랑을 거느리며 詩書琴書를 하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용의 처지는 야담 <관홍장자장안명기야>에서 기녀 관홍장의 경제적인 궁핍상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기녀 관홍장은 노모를 굶기는 극한 상황에 처하자 한주에 대한 수절 의지를 꺾고 이천군에게 의지하였던 것이다. 조선 시대의 기녀들은 개인적인 특별한 재산이 없는 한 관홍장처럼 수절하기가 어려웠으며 남성들 특히 양반이나 중실들의 후원에 의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반해 부용은 넉넉한 재산으로 인하여 자신의 애정 추구의 의지를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용의 경제적인 여건은 조선 시대 기녀들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제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만큼 기생의 신분적인 질곡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분적 질서가 비교적 엄격하였던 조선 전기에는

44) <부용상사곡>, 앞의 책, 6면.

어려웠던 것이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 질서의 와해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용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하여 주도적인 애정 지향의 욕구를 실현하기에 이르는데, 평양에 구경차 놀러온 김유성의 구애를 받고, ‘첩은 청루 천종이오 (중략) 첩이 다시 무슨 말씀으로 그 감격함을 사례하리이까’ 라고 하여 흔쾌히 수락한다. 부용은 자신이 깔고 닦았던 가곡 연주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경파예상우의곡’ 등을 연주하며 유성의 마음을 기쁘게 위로한 뒤 그와 가연을 맺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 여건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애정 추구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신분적 사회 질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기녀 부용에게 가해지는 강압적인 기녀 수청이라는 세계의 횡포는 여전히 기녀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절곡을 부용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유성과 헤어질 때에 ‘첩의 몸이 官府에 매였사움에 지킨 뜻을 펴박할 자 많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물론 이에 굴하지 않고 부용은 자신의 수절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다. 또한 부용의 수절 의지는 앞서 살펴본 대로 중국 옛 여인들을 만나는 夢中世界를 통하여 강하게 표현되고 몽중 세계에서 부용의 수절 행위가 예고되기도 한다.

몽중 세계의 설정을 통한 수절 의지와 수절 행위의 강조는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 부용에 대한 횡포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꿈에서 깨자마자 부용은 신임 평양 감사 이도중의 수청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평양 감사의 수청 요구는 기녀에 대한 지방관의 하나의 일상적인 권한이었으며, 그 지방의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官妓로서는 그러한 수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부용의 강압적 수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중앙 조정에서 부임해 온 신임 감사와 평양 지방의 토착 세력인 通引의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모습을 보인다. 신임 평양 감사 이도중은 酒色을 즐기는 향락적인 인물로 제시되어 있고 여기에서 감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에게 아부하는 통인 최만홍이 한통속이 되어 부용으로 하여금 수청들지 않을 수 없도록 교묘하게 부용을 엮어낸다. 신임 감사는 처음에 부용이 수절하는 기녀임을 들어 통인 최만홍의 부용 수청 제의를 거절하는 듯하지만 마침내 최만홍의 피를 빌려 신임 감사의 환영연에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녀들을 참석케 하는 명령을 내리고 부용으로 하여금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수

청 과정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의 양반의 기녀에 대한 부조리한 횡포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만큼 조선 후기 사회가 신분적인 질곡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질곡과 횡포 앞에서 기녀가 자신의 애정 지향의 의지와 수절 의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기녀의 면전 항거나 도피 행각이다. <춘향전>에서 춘향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방관의 수청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한편 <월하선전>에서 월하선은 망명 도주한다.⁴⁵⁾ 이러한 항거나 도피 행각 이외의 방법으로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는데, <부용상사곡>에서 부용은 대동강물에 투신 자살한다. 이러한 節死 행위는 고전 소설에서 유형화된 고난 회피의 수단이자 자신의 결백이나 지조를 증명하는 극한 행동 방식으로 현실적인 타개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념적인 산물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수청 회피 수단으로 선택한 자살이 비록 관념적일지라도, 그 죽음 선택은 조선 후기 신분제적 사회의 모순 앞에서 자신의 애정 추구 욕망과 수절의 의지 그리고 신분 상승의 의지를 성취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로 보아 부용의 투신 자살은, 여타의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는 양반가 아녀자의 투신 자살이 보수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조선 후기의 신분제적 사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작품 요소가 된다. 기녀가 자신의 애정 감정과 수절의 의지를 밝히기 위하여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책임의 실체가 막연한 외적인 폭력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왜곡된 신분 질서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렇듯 사회적·신분적 질곡에 대항하던 부용은 마침내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기에 이른다. 부용은 구조되고 피신하여 지내다가 평안도 암행어사가 평양 감사의 죄상을 탄핵함으로써 유성과 해후하여 자신의 애정 결핍을 이룬다. 더욱이 유성의 자유 연애를 반대하였던 유성의 모친을 모시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이로 인하여 부용의 애정 지향의 욕구와 신분 상승의 욕구가 실현되기에 이른다.

45) <월하선전>에서 월하선의 경우 남진사의 수청 강요를 피하여 도피 행각을 벌인다. 조선 후기 지방 관아의 노비안을 보면 기녀들 중에 도망으로 처리되어 있는 자가 많이 끼어 있는데, 이러한 현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 풍류 남아 김유성의 자유 연애 의식—신분·남녀 차별 반대

기녀 부용의 신분제 사회에 대한 저항의 모습은 남주인공 김유성에 의해서도 구현된다. 유성은 세상 물정을 구경하기 위하여 평양에 들렀다가 우연히 기녀 부용의 모습에 이끌려 애정 행각을 벌인다. 특히 부용이 '예상우의곡' 등 7곡을 연주하고, 이에 대꾸하여 유성이 '봉명곡' 등 4곡을 연주하는데, 이러한 악곡 연주 행위는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구운몽>·<옥루몽>을 수용한 것으로 양반과 기녀 사이의 풍류 행각의 전형적인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풍류 남아의 모습은 기녀를 둘러싸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 양반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미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성의 風流才子다운 모습은 그가 처음부터 아름다운 여성과 가연을 이루기를 원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었던 것에서 비롯된다. 유성은 친한 벗 이몽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 내용은, 당나라 시절 미모와 재색이 뛰어난 기녀 홍초와 최생이 우연히 만난 후 최생이 연정을 품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을 헤아린 하인 곤륜노가 재상가의 집에 숨어들어가 홍초를 데려와 연인들의 가연을 이루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두고 유성은 시를 지어 불러주자 친구 이몽매는 유성을 두고 풍류제자라고 일컫는다. 유성은 “홍초와 같은 문장과 자색을 겸한 여자가 있을진대 그 娼妓임을 혐의치 아니하고 마땅히 백년을 동락하리라”⁴⁶⁾ 라고 생각한다. 당나라 기녀 홍초와 같은 美人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유성의 애정 욕망은 젊은 시절 누구나 지녀봄직한 낭만적인 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녀 제도가 존속하고 있던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 유성에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 이몽매는 유성을 가리켜 風流才子라고 하였고, 유성 자신도 이에 이의를 달지 않았으며 세상 물정을 구경한다고 하면서 평양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평양은 유성의 선친이 감사로 역임하였던 연고지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조선 시대 기녀들로 유명한 색향이었던 것이어서 그만큼 풍류 남아로서는 한번 정도 들러보고 싶은 고장이기도 하였다.

46) <부용상사곡>, 앞의 책, 11면.

유성은 평양에 당도하여 재색이 빼어난 기녀 부용을 만나 주점 노파로 중매를 놓아 그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시를 주고 받고 악곡을 서로 연주하고 난 후에,

내 연기 二九에 이때까지 취치취 아니함은 스스로 썩 하되 숙녀 가인이 아니면 짝 지음을 즐겨하지 아니함이러니 이제 낭을 보니 이 진짓 同聲相應이요 同氣相求며 하물며 낭은 비록 靑樓에 誤落하였으나 그 옥결빙심이 금세에 대두할 이 없음을 내 또한 이는 바라⁴⁷⁾

라고 하여 자신과 부용이 ‘동성상응’이고 ‘동기상구’라고 말하며 서로 하나가 되기를 구애한다.

이어서 유성은 부용에게, “달은 정히 등글고 꽃은 아리따운데 서로 만남에 너덕히 어여쁜 밤이로다 산이 높고 바다가 넓은 깊고 깊은 언약은 이 세상과 이생에 웅당 사라지지 않으리라(月正團圓花正嬌 相逢洽是可憐宵 山高海闊深深約 此世此生應不銷)”⁴⁸⁾라는 시를 지어준다. 여기서 유성은 달밤의 정경과 서로 만남의 정취를 언급한 뒤에 서로 맺은 사랑의 약속을 산과 바다의 광대성에 비유하여 영원할 것임을 표현한다. 이에 부용은 “달은 정히 빛나고 꽃은 고운데 늦은 단장을 겨우 파함에 사람으로 하여금 어여빠하는도다 두정이 서로 대하여 꽃다운 인연을 정하였으니 향기로운 연못에 꼭지를 한가지로 한 연꽃을 부러워 아니하도다(月正光華花正研 晚粧#罷倩人憐 兩情相對芳緣定 不羨香池并蒂蓮)”⁴⁹⁾라는 시를 지어 대꾸한다. 이 시를 통하여 부용은 유성과의 애정 결합을 연못의 연꽃에 비유하는 민첩함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부용과 유성은 서로의 연정을 확인하고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이러한 남녀의 육체 관계의 성사는 당시 조선 시대 기녀와 양반들 사이에서 흔히 주고받던 풍류적인 면모의 하나이다. 이러한 풍류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으로 야담 <기평시율>⁵⁰⁾을 들 수 있다. 金, 崔, 柳 세 선비들이

47) <부용상사곡>, 앞의 책, 33면.

48) <부용상사곡>, 앞의 책, 35면.

49) <부용상사곡>, 앞의 책, 36면.

50) <妓評詩律>, 《奇聞》(민속학연구소 편, 《고금소총》, 615-617면, 민속원, 1958).

이 이본으로는 <부안기계생>이라는 제명으로 된 것들과, <방계이허령조환>라는 제

계월을 찾아온 것은 모두 기생 계월과의 풍류 행각을 누리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계월은 세 선비들이 제시하는 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선비 柳의 시를 선택하여 그와 하루밤을 즐긴다. 柳가 지은 시의 내용은 흰 팔을 잡고 두 다리 올린 모습, 붉은 구멍을 꿰뚫은 모습, 안개 서린 듯한 기생의 얼굴, 기녀에게 먼 하늘이 동전만하게 느껴지는 것 등을 담고 있는데, 노골적인 정사 장면과 여성의 흥분 상태를 제시한다. <기평시율>은 시를 전개하는 형식을 통하여 완전한 性愛를 추구하고자 하는 성적 욕구를 지닌 자유 분방한 기녀를 형상화한 이야기인데 그 과정에서 양반 선비들의 풍류적 애정 행각이 잘 드러나 있다. 비록 <기평시율>에서와 같이 농염한 정도의 내용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부용상사곡>에서 기녀 부용도 연꽃 꼭지가 서로 상응하고 있는 모습을 시의 내용에 담아 유성에게 제시함으로써 남녀의 육체 관계를 암시한다. 이렇듯 유성은 부용에게 접근하여 부용을 자신의 풍류적인 애정 행각에 끌어들인다. 이러한 유성의 애정 행각은 사대부들의 일반적인 풍류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유성의 이러한 애정 행각은 기녀를 하나의 애정 행각의 대상으로 보거나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조선 시대의 양반들의 향락적 관습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양반들의 애정 행각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앞서 유성이 지은 시에서 유성이 부용과의 애정의 약속을 산과 바다의 광대성에 비유한 것처럼 부용을 단순히 애정 행각의 수단으로 불쾌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성의 애정 태도는 작품의 초반에서부터 제시된 그의 애정관과 혼인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명으로 된 것이 있는데, 제시된 시의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扶安妓桂生>(연세대 4책본 <기문총화>), <扶安妓桂生>(고려대본 <계서잡록> 권1), <扶安妓桂生>(서울대 가람문고본 <청야담수>), <訪桂娥許令助歡>(가람본 <동야취집> 권4).

- 51) 봄 찾는 호걸이 기운 뻗치니, 비취 이불 속에 그대를 만났네. 흰 팔을 잡고 두 다리 올리고, 붉은 구멍을 꿰었으며 두 줄이 등글도다. 교태로운 얼굴을 얼핏 보니 안개 서린 듯하고, 점차로 긴 하늘이 동전 만하게 보이누나. 이 속에 만약 재미가 유별남을 말할진댄, 하룻밤 높은 값이 천금에 해당하리.(探春豪士氣昂然 翡翠衾中有好緣 撐去玉臂陽脚屹 貫來丹穴兩絃圓 初看嬌眼迷如霧 漸覺長大小似錢 這裡若論滋味別 一宵高價值千金).

일일은 공자가 모부인에게 고왈 부부는 인륜의 으뜸이요 만복의 근원이라 서로 가우를 만나지 못하면 이는 평생의 업원(業冤)이 되는 바이어늘 조선 풍속이 괴이하와 피차 선악을 알지 못하옵고 다만 부모의 명을 좇고 매작의 말만 들어 백년 가기를 맺사옵에 그 능히 양정이 상함하여 실가지락(室家之樂)을 일우는 자가 드문지라 소자의 생각에는 귀천을 물론하옵고 소자의 눈으로 규수의 선악을 본 연후에야 가약을 정하려 하오니 복망 태대는 부질없이 용려치마소서⁵²⁾

유성은 부부의 인연을 인륜의 으뜸이자 만복의 근원으로 본다. 이러한 부부 중심의 사고 방식은 과거 조선 시대 부모 중심의 가족 질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사고 방식이다.⁵³⁾ 유성은 대가족 제도에서 부모 중심의 가족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명령만을 좇는 결혼 풍속을 일컬어 '괴이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한다. 또한 유성은 배우자 선택의 기준을 신분의 貴賤에 두지 않고 인간성의 善惡에 둬으로써 봉건적 신분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취한다.

김유성의 이러한 진취적인 태도는 그가 양반가의 자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유성이 비록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모친의 슬하에서 지내왔으나 그렇다고 몰락 양반의 처지로 전락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 급제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던 몰락 양반과는 달리 유성은 정치적·경제적 여건이 탄탄한 상층 양반층의 일원으로 그려진다. 유성의 부친은 생전에 이조판서와 평양감사를 역임한 조선 시대 상층 권력층의 일원이었으며,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유성의 家計가 넉넉하였으며 그의 모친은 매파를 놓아 배필을 구하려고 노력해오던 터이었다. 이렇듯 어엿한 양반가의 일원인 유성이 부모의 의견도 묻지 않고 대뜸 신분 타파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선택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김유성의 자유 연애의 욕구는 모친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다. 모친은 유성의 소청을 듣고 불가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해버리는데, 이러한 모친의 반대는 상층 사대부의 일원으로서 지배 계층의 의식을 공유한

52) <부용상사곡>, 앞의 책, 7-8면.

53) 애정소설 중에서 많은 소설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적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인다.(김일렬, <고전소설에 나타난 가족의식>, 《동양문화연구》 1집, 경북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4, 18-21면)

모친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유성은 모친의 엄한 반대와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양으로 향하여 부용을 만나 자신의 자유연애의 욕망을 관철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유성의 자유 연애의 욕망은 평양에 들러 부용을 만나 애정을 성취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유성은 부용에게 자신의 애정 행각이 사대부들의 무책임한 애정 행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내 비록 호탕한 남자이나 옛 글을 읽어 信義를 들었나니 어이 貪花狂蝶의 경박한 태도를 본받아 五月飛霜에 함원하는 뜻을 생각지 않으리요 이제 한 말로 정하노니 모란봉이 길이 푸르렀고 대동강수가 끊어지지 않음과 같으리라⁵⁴⁾

위 인용문을 보면, 유성에게 있어서 기생 부용은 다른 사대부들과는 달리 하나의 향락적이고 성적인 노리개가 아니라 한 인간이자 진실한 사랑의 주체임이 드러난다. 유성은 부용이 아무리 기녀일지라도 사랑의 배신을 당하면 오월에 서리를 내릴 정도의 억울한 감정을 지닌 여성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용에 대한 사랑의 영원성을 모란봉과 대동강의 영구성에 비유한다. 이러한信義를 바탕으로 하는 부용에 대한 구매 행위는 당시 양반들이 기녀들을 상대로 벌이는 성적 유희의 애정 행각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한 당시 여성들이 남성을 향하여 애정의 불변성과 수절의 의지를 표현하였던 세대에서 그것을 뒤집어버리고 양반 김유성이 여성 그것도 기녀에게 사랑의 배신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유성의 구매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는 파격적이고 진보적이라 할 만큼의 남녀의 대등한 사랑, 양반과 기녀의 대등한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유신은 이후 평양에 머물면서 부용과 사랑을 나눈 지가 한달 가량이 되자 모친을 염려하여 경성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유신은 부용과의 사랑을 부부의 관계로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 부용과 이별할 때에 유신은 말하기를, “내 집에 돌아가 수이 車馬를 보내어 낭을 데려 갈 것이니 잠시 이별을 창연히 여기지 말지어다”⁵⁵⁾라고 한다. 나중에 부용의 대동강 투신 자살 凶報를

54) <부용상사곡>, 앞의 책, 34-35면.

55) <부용상사곡>, 앞의 책, 37면.

듣고 부용에 대한 생각으로 슬픔을 가누지 못한다. 이때 모친은 그 일을 알고 오히려 자신에게 그 일을 알리지 않고 부용을 즉시 데려오지 않음을 책망한다. 그러나 부용이 구조되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성천 부사로 가게 되면서 유성은 부용과 만나게 되고 부용은 유성의 모친을 모시게 된다. 이에 이르러 기생 부용에 대한 유성의 신분 차별을 초월한 사랑과 자유 연애가 결실을 맺는다. 유성의 기생 부용에 대한 애정의 결실은 양반 김유성의 개인적인 욕망의 실현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완강히 반대하였던 모친으로부터 동조를 얻어낸 것으로 보아 유성의 애정 욕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 모습을 보여준다.

4. 서정 시가의 삽입과 그것의 사회적 의미

<부용상사곡>은 가사의 소설화 또는 시가와 소설의 장르 복합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부용과 유성의 애정 결연은 그 서사적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되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여러 편의 삽입 시가에 표현되고 있다. 특히 <부용상사곡>은 그 시가의 수가 무려 30여 편이나 되는데, 다른 소설 작품에서 시가가 삽입되는 경우에 비해 그 시가의 분량이 훨씬 많다. 이러한 서정 시가의 삽입으로 인하여 대화나 행동의 효과 이상으로 만남과 사랑, 이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낸다. 삽입된 서정 시가들은 서사 진행 과정을 멈추게 하고 그 정지된 장면을 확대시킴으로써 마음의 감정을 극대화시킨다. 이것은 앞서 이 작품의 구성적 특징의 하나로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인데, 여기서는 <부용상사곡>의 제명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는 서정 시가를 중심으로 다루어보기로 한다.

다음은 서로 이별하는 餞別宴 자리에서 부용과 유성이 주고 받은 시이다.

<부용의 이별시>

세상이 넓고 넓음이여/ 지기를 만나기 어렵도다
저문고로써 중매를 함이여/ 가만한 언약으로 서로 좇았도다

푸른 산이 늙지 아니함이어/ 강수는 길이 흐르는도다
 일조에 나뉘어 떠남이어/ 이 한이 길고 길도다
 어느 날 돌아옴이어/ 다시 옛 정을 말씀할까
 가득히 한 잔을 부음이어/ 말씀을 정녕히 부치노라⁵⁶⁾
 宇宙廣兮/ 知己難逢
 以琴爲媒兮/ 密約相從
 靑山不老兮/ 江水長流
 一朝分離兮/ 此限悠悠
 何日歸來兮/ 更說舊情
 滿酌一杯兮/ 寄語丁寧

<유성의 답시>

인간이 가장 괴롭도다/ 가장 괴로움이 이별이로다
 그대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대를 어여뻐 여기데/
 오늘날 서로 이별함에 한이 의의하도다
 손을 잡고 둘이 말씀이 없으니/ 눈물이 김옷에 젖는도다
 술을 잡고 한 곡조를 노래하니/ 그림 눈썹이 나즈막하도다
 많고 적은 말씀을 이르지 마소/ 다시 만남이 기약이 있으리로다
 차마 소매를 나누지 못하니/ 돌아가는 걸음이 더디고 더디도다⁵⁷⁾
 人間最苦/ 最苦是分離
 爾愛我我憐爾/ 今日相別恨依倚
 攜手兩無語/ 漏濕羅衣
 把酒歌一曲/ 畫眉低
 休說多少事/ 中峰有期
 不忍分袂/ 歸步遲遲

부용은 사랑하는知己를 만나기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서로 헤어짐에 있어서의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다. 이에 대꾸하여 유성은 인간이 만물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라 표현하고 그 고통은 바로 이별에 있다고 노래하며 비록 다시 만날 것이지만 떠나는 걸음이 더디다고 하여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다. 이 두 이별시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져야만 하

56) <부용상사곡>, 앞의 책, 339면.

57) <부용상사곡>, 앞의 책, 40-41면.

는 마음의 고통을 담아내고 있다.

조선 시대 양반들은 아직 벼슬하기 전이나 또는 지방관이나 외방 사신으로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지역의 관기와 정분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그 지방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기녀와 이별하면서 양반들은 사랑하던 기녀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흔히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제 삼자가 이별의 정황을 시로 제시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별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詩才를 이용하여 석별의 정을 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화 <여처용신식>⁵⁸⁾과 <이후백미석갈>⁵⁹⁾에는 양반들이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오르기 전에 만나 사랑하던 기녀와 헤어질 때 남주인공들이 시를 남기면서 그 슬픔을 표현한 내용이 들어 있다. <유시문안권양사>⁶⁰⁾는 벼슬 전의 두 선비가 벼슬아치로 변장하여 한 고을에 들어가 기녀를 사랑하고 각각 사랑하던 기녀들과 이별할 때의 슬픔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이별의 정황이 제 삼자에 의하여 시로 남겨진다. <아백씨>⁶¹⁾에서 성현은 자신의 형을 비롯하여 진산 강경순의 시와 서하 임자심의 시, 그리고 그 상황을 그려보는 다른 사대부들의 시가 제시되면서 나뉠대로의 기녀와의 이별의 아픔을 담아내고 있다. <강목계혼상왕영남>은 목계 강흔과 석산 기생 은대선의 이별의 내용을 담고 있다.⁶²⁾ 기녀와의 이별의 정황을 담고 있는 이 시들은 양반의 기녀에 대한 향락적 애정 행각의 단계에서 진솔한 애정의 단계로까지 승화되어 있는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이별의 슬픔의 연장선에서 <부용상사곡>에서도 기녀 부용과 유성의 이별의 극한 정황이 제시된다. 이별의 서정 시가를 담고 있는 일화나 야담

58) <余妻翁申拭>(만종재본 《어우야담》).

59) <李後白未釋褐>(장서각본 《어우야담》).

60) 성현, <有斯文安權兩士>, 《용재총화》(민족문화추진회, 《국역대동야승》 1, 142면).

61) 성현, <我伯氏>, 《용재총화》(민족문화추진회, 《국역대동야승》 1, 145-148면).

62) 어숙권, <姜木溪渾嘗往嶺南>, 《패관잡기》 2(민족문화추진회, 《국역대동야승》 1, 456-457면).

이 이본으로는 <사명지출외>, <강진산흔>, <성주기은대선>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使命之出外>(<견한잡록>:(민족문화추진회, 《국역대동야승》 3, 566-567면), <姜晋山渾>(연세대 4책본 《기문총화》), <星州妓銀始仙>(서울대학교문고본 《청야담수》)).

에서 드러나는 서사 세계라는 것도 기녀와 양반간의 이별의 고통과 그 이별이 유래되는 사회적 질곡 상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 개인의 순수한戀情이나 그 연정을 두고 읊조리는 詩才를 드러내는 수준에서 그치고 마는데, <부용상사곡>이 서정 시가를 수용함으로써 서정 시가를 담고 있는 일화나 야담의 성격을 띠면서 소설적 구성과 구조의 치밀성이 약화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즉 이별의 정한이 강조되면서 <부용상사곡>은 서사 세계의 대립·갈등의 치밀성과 긴밀성을 놓치고 서정 시가에 그 자리를 내어놓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

한편 소설에 서정시가 삽입되는 양식은 조선 시대 초창기 소설 <금오신화> 이래 <주생전>, <운영전>, <상사동기>, <이진사전> 등으로 이어져오면서 등장 인물의 개성적인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데 일조한다.⁶³⁾ 이러한 서정 시가의 삽입 현상이 <부용상사곡>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 서정 시가는 부용과 유성의 애정에 대한 진솔한 내면 의식을 담아낸다. 그런데 <부용상사곡>에서는 소설적 대립과 갈등의 치열성을 무너뜨리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정 시가의 感傷的 정조로 소설의 갈등 구조를 대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부용상사곡>의 소설로서의 치열성과 긴밀성의 파괴 내지는 약화 현상은 이어지는 <상사별곡>과 <충시>의 삽입 수용으로 인하여 한층 심화된다. 먼저 <상사별곡>과 관련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상사불견 이 내 진정 그 다투서 능히 알리/ 맺힌 시름 이렇저렇 흐트러진
만단 근심/

다 후루쳐 던져두고 자나깨나 깨나자나/ 임 못 보아 가슴 답답 어린 양자
고은 소리/

눈에 암암 귀에 정정 보고지고 임의 얼굴/ 듣고지고 임의 소리 비나이다 비
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임 보기를 비나이다/(중략)/

낮 벼개에 잠깐 들어 입을 보려 하였더니/ 오동지상 학의 소리 상사몽을 훌

63) 이승복, <고전소설의 서술구조와 삽입시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이종목, <주생전의 미학과 그 의미>,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1.12.

쳐 깨어/

사랑을 반개하고 맥맥히 앉아보니/ 사랑 모여 산이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고/

눈물 흘러 물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다/ 임도 나를 생각하면 내 설움과 같으리라/

적적무인 빈 방안에 홀로 있어 시름이라/ (중략)/

초창하고 적막한데 다만 한숨 내 벗이라/ 맺히고 맺힌 설움 누구다려 이를 쓴가/

연약한 일촌 간장 구비구비 다 썬는다/ 지는 눈물 바다내면 배도 타고 아니 가라/

쉬는 한숨 바람 되면 임의 창에 붙어볼까/ (중략)/

고금왕래 이별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는가/ 해도 가고 달도 가니 꽃은 피어 절로 진다/

이슬같은 이 인생이 상사겨워 어이 살리/ 만첩상사 그려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랴/

두어라 일후에 다시 만나면 기연인가64)

앞서 살펴본 바, <부용상사곡>에서 부용이 지은 <상사별곡>은 가사 <상사별곡>을 수용한 것이다. 부용은 유성과 헤어진 뒤 이별의 서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전에 빌면서 유성과 해후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그 만남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의 일단은 전혀 보이지 않고 단지 시름과 한숨 그리고 눈물 등 자포자기식의 회한과 설움이 주된 정조를 이룬다. 그리하여 부용은 자신의 일생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이슬’로 비유하면서 그 이슬과 같이 짧은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相思의 恨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만날 날을 원하지만 다행이 임과 재회하게 되면 그것은 거의 奇緣이라고 노래할 뿐이다. 이는 사랑하는 임과의 만남을 원하지만 그것이 실현화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부용은 이렇듯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뜻이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로 흘러가고 있음을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부용의 신음은 이미 조선 시대의 <상사별곡>의 정조와 맞닿아 있다. 제목이 <부용상사곡>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작가의 의도가 가사 <상사별곡>의 가사 내용과 더불어 그 정조를 받아

64) <부용상사곡>, 앞의 책, 61-65면.

들이려 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부용상사곡>은 “동요하는 봉건 사회에서 아무런 明日의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苦役하는 일반 대중의 신음 소리”⁶⁵⁾를 주된 정조로 하는 가사 <상사별곡>과 같은 가사를 수용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기녀의 신분 상승의 욕구가 사회적 질곡 상태에서 치열하게 형상화되지 못하고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용상사곡>은 대립과 갈등이 서사 세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지 아니하고 서러움과 한스러움의 感傷的 정조를 담고 있는 서정시로 대치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서정 시가의 감상적 정조는 부용이 지은 “장단구 상사곡”에서 확인된다. 이 노래는 실존 인물 부용이 지은 <충시>를 수용하였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부용상사곡>에서 작중 인물 부용이 “장단구 상사곡”을 지을 때에는 이미 자신을 겁박하려던 평양 감사 이도중과 그의 하수인 최만홍이 압행 어사 이몽매에 의해 퇴치된 이후이다. 그렇다면 부용은 회한의 정과 서러움의 감정에 몰입된 상태에서 벗어나 유성과의 해후를 기대하면서 유성에게 밝고 활기찬 감정의 노래를 보내었을 만하다. 그러나 부용은 여전히 “대동강이 평평한 육지를 이룬 후에 맘을 채쳐 그 오시려나 장립이 큰 바다로 변할 처음에 배를 타고 건너고자 하는가”라고 의구심에 싸인 채 “유약한 아녀자로 하여금 원통함을 머금고 황천에 돌아가 외로운 혼이 달 가운데 울며 길이 다르게 마소서”라고 노래하면서 유성이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울며 애원한다. 부용이 이렇게 애원하는 것은 유성의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부용과 유성의 진실한 사랑을 가로막는 조선 후기 사회의 열악한 사회적 여건을 두려워해서이다. 즉 부용은 신분 차이의 극복과 남녀 평등에 바탕을 둔 애정 지향의 의식이 조선 후기의 신분적 질곡에 대한 저항의 식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울한 조선 후기의 말기적인 정후로 인하여 그 의식의 현실화가 더욱 멀게 느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말기적인 증후는 서정 시가의 삼입과 맞물려 작품의 서사 세계로 확대된다. 부용과 유성의 재결합이 그들 자신의 실천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적인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들의 애정 지향의

65) 이명선, 《조선문학사》, 1948, 127면.

의지는 당사자들의 힘에 의해 실현되지 않고 평안도 어사 이몽매의 평양 감사 탄핵에 의해 실현된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자유 연애와 신분 차별의 폐지라는 서민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기녀와 양반의 애정 결합에 초점을 맞춘 것이 <부용상사곡>이지만, 그러나 <부용상사곡>에 드러난 조선 후기의 사회 현실은 그러한 서민 의식을 완전히 성취되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은 암울한 세계였던 것이었다. 몰락해가는 조선 후기 사회, 새로운 사회로 이행해 가는 도중, 한편으로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봉건적 신분 질서가 서민들을 압박하자 서민들로서는 그 현실적 질곡 상태에서 실천적인 저항력을 잃고 따라서 감상적 정조를 피할 수 없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감상적 정조를 담고 있는 <상사별곡>이나 <충시>와 같은 서정 시가가 소설 <부용상사곡>에 삽입되어 작품의 서사적 구성의 치열성을 깨뜨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사 세계의 치열성을 탈피하여 서정 양식의 삽입을 피하고 있는 이 작품의 특징을 두고 작품적 복고성과 통속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 작품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주옥같은 서정시의 출현은 역설적으로 열악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서사 세계 못지 않게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 질서의 도래를 희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정 양식은 욕망이 충족된 상태에서의 마음의 상태를 노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현실적 질곡의 상황에서 아름다운 세상이 와서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기를 갈망하는 감정을 신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회적 질곡의 상황을 두고 탄식과 회한의 체념적·감상적 감정을 신기도 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대부와 필적하는 중인들의 개인 시집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기생들로 어우러진 詩壇 활동이 나타난 것도 이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 기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시단으로는 삼호정 시단을 꼽을 수 있다.⁶⁶⁾ 그 와중에서 서민 또는 기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상사별곡>과 실존 기녀 부용의 한시 <충시>와 같은 서정 시가가 소설 <부용상사곡>으로 삽입된 것은 조선 후기 문학 양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서사 세계의

66) 김지용, 앞의 논문.

치열성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서사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슬픔과 탄식의 감정이 주조를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부용상사곡>의 경우 애정 결합과 이별의 주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그 상황에 따라 애정에 대한 열망과 그것의 좌절에 따른 서글픔, 그리고 재회에 대한 그리움의 정조가 진솔하고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한 감정을 담고 있는 서정 시가는 비록 감상적일지라도 그럴수록 그러한 감정을 잉태케 한 사회 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작품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로 보아 치열한 갈등을 담아내고 있는 소설 이상으로 그 아름답고 애절한 서정 시가가 수용됨으로써 조선 후기 신분 해체기에서 겪어야만 하는 서민들 특히 기녀들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강한 열망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 양식에 서정 시가의 삽입·확대 현상은 조선 후기 봉건 사회의 해체 현상과 맞물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⁶⁷⁾

특히 <부용상사곡>은, 조선 후기 사회의 병폐적 증후에서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감정을 조선 후기 사회의 추상적인 현실 세계에 홀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기녀와 양반의 애정 결연의 서사 세계에 수용하여 그 고통과 쓰라림의 근원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사회적 질곡을 단적으로 잡아내고 있다. 말하자면 <부용상사곡>은 소설 양식의 토대 위에 서민의 의식을 담고 있는 서정 시가를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서사 세계의 치열한 대립·갈등 구조와 등장 인물의 현실성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 이상으로 서정 시가에 역사성과 사회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사회적 질곡

67) 최원식과 박일용은 <부용상사곡>을 두고 그 감상적, 주정적 서정 시가 양식의 삽입으로 인해 소설적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은 <부용상사곡>이 서정 양식을 수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특성을 지나치게 소설 양식의 틀에 맞추어 해명하려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감상적이고 주정적인 서정 시가의 삽입으로 대립·갈등 구조의 치열성의 약화되고 그 갈등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그 원동력이 등장 인물들에게 있어서 현실성을 상실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용상사곡>이 서정 양식을 수용한 소설이라는 그 자체의 개별 작품적 특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아무리 감상적이고 주정적인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작품이 오히려 조선 후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83., 박일용, <왕경룡전계 애정소설의 흐름과 사회적 성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참조할 것).

과 모순을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5. 결론 및 남는 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용상사곡>은 <구운몽>·<옥루몽>의 일부 수용, 몽중 세계를 통한 守節의 강조, 가사 <상사별곡>의 수용, 기녀 관련 의 살해 관련담 및 기녀 수절담의 영향, 기생 부용의 『부용집』의 <층시> 수용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조선 후기의 실존 기생인 부용의 행적과 작중 인물 부용의 행적이 일치하지 않으며, 다만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음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구성적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부용상사곡>은 기녀 관련 의 조선 시대 풍류적 생활을 반영하면서도 여주인공 부용의 애정 지향과 수절 의지, 그리고 남주인공 김유성의 자유 연애관과 남녀 평등관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남녀의 애정 문제가 조선 후기의 사회적 질곡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녀의 애정 결연과 이별 그리고 재결합의 과정을 서사적 세계로 드러내면서 <부용상사곡>은 한편으로 서민이나 기녀들의 애절한 감정을 담고 있는 서정 양식의 삼입·확대를 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용상사곡>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녀와 양반의 사랑을 문제 삼은 작품으로, 주인공들의 애정 결합과 감상적·주정적 정조를 통하여 신분적 질곡으로 얽매어 있던 조선 후기 사회 현실을 매우 강하게 비판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서정 양식을 삼입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독특한 소설로서 <부용상사곡> 이외에도 <추풍감별곡>이나 <청년회심곡>이 있고, 또한 <꼭독각시전>, <괴똥어미전> 등이 있는데, 이들을 섭렵하여 다루지 못한 것은 본 연구 작업의 한계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특히 <추풍감별곡>과 <청년회심곡>은 <부용상사곡>과 같이 기녀와 양반의 애정 행각을 다루고 있는 애정 소설이라는 점에서 이들 작품과의 비교 분석은 절실하였지만, 이 연구 작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